

투데이 칼럼

심각한 한일문제 반대 여론

한 일문제를 둘러싼 국민 여론이 심각하다. 한일문제에 대통령의 지지율도 끈두박 짚었다. 실제로 지난 3월 6일 정부가 일본 배상 해법을 발표했을 때부터 여론 반발이 컸다.

정부는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나 안보 분야 등에서 한일 관계 개선의 실질적 성과가 나오면, 여론이 바뀔 거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변화가 느껴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들에게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을 내리게 된 배경을 직접 설명하고, 대국민 설득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일본이 이미 수십 차례 과거사 문제에 반성과 사죄를 표했다고 했다.

그렇다면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추가 사죄를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문제는 일본 내각이 과거 두 달 만에 배치는 언행을 계속 해 오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강제동원 해법을 발표한 지 3일 밖에, 하야시 일본 외무상은 강제동원의 불법성을 부인하는 발언을 했다. 때문에 지금 기사나 내각이 계승하겠다고 한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입장을 명확히 알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피해자 측 반응은 심각하다. 강제동원 피해자는 정부가 인정한 사람만 21만여 명



정복구
논설위원

에 이른다. 피해자들의 의견을 하나로 정리하기는 어렵다. 피해자 단체들의 의견은 물론 같았다.

대통령 발언을 지지한다는 쪽에선, 한일 관계 개선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동의한다고 했다. 대신 관계 개선 뒤에는 사죄나 배상 참여 같은 후속 조치가 이어질 바란다고 했다.

반면 비판하는 쪽에서는 국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국가적 정체성을 부정당했다고 느낀다고 했다. 그래서 자존심이 상한 건데, 대통령이 이런 정서를 잘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

대통령은 비판 여론 속에서도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그러나 앞으로 한일 관계가 순탄하게 발전될지는 낙관하기 이르다. 한일 관계 개선은 정권의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국민의 광범위한 지지가 필수적이

다. 정부의 대국민 설득 노력의 진정성 그리고 일본 정부의 호응 정도에 따라 양국 간 미래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일 관계는 한미, 한중관계와는 다르다. 역사, 영토 문제 등 곳곳에 갈등 요소가 있다. 최근 양자 간 인식 차로 충돌이 더욱 격화하는 상황이다. 한일 갈등은 단숨에 해결하기 보다는 세밀하게 관리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일본 우파적 세계관이나 외교 체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접근했다. 결국 철저한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크다. 2018년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기본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일본은 극히 일부 진보적인 학자를 제외하면 1910년 한일합병을 합법으로 본다. 제3차 변제 안에는 일본 측의 사죄와 배상 참여가

빠져있다.

일본은 '더디어 한국이 한일합병의 합법성을 인정 했구나'로 받아들였다. 결국 더 이상 어떤 추가 호응 조치의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 일본 사람들은 하나를 받았을 때 하나를 되돌려주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느낀다.

그러나 사회 윤리와 외교 논리는 다르다. 과거사와 관련된 일본의 사회 담화도 있기는 했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2010년 나오토 총리가 발표한 담화이다. 1992년 고노 담화, 1995년 무라야마 담화도 있었다.

식민지배의 강제성과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일본의 일관된 외교 기조에도 '식민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무라야마 담화), '한국인들의 뜻에 반한 식민 지배(나오토 담화)'라는 내용을 이끌어냈다.

한일 과거사 문제는 영원히 풀리지 않을 숙제일까. 현 세대의 벌어진 인식 차를 금방 좁히기는 어려울 것이다. 문제는 한국 대통령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기대를 했다는 점이다.

기사다 후미오 총리와 인간적 관계를 맺어두면 생각이 완원 할 수 있는 대안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를 한 것이다. 그러나 속도 조절과 지속적인 협상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은 매우 아쉽다.

사설

북한 지도자의 열등의식

북한 김정일은 모친에 대한 열등의식이 매우 크다. 그의 어머니 고영희의 고향은 제주 시 조천읍이다.

이곳에는 고영희의 친척 일부가 살고 있다. 고영희의 부친이자 김정일의 외할아버지 고경택은 1913년 제주도에서 태어났으며 1929년 일본 오사카로 건너갔다.

그는 군복과 천막을 만드는 군수공장 제봉소에서 일했다. 그리고 1952년 일본 오사카시 코리야타운 부근의 쓰루하시(鶴橋)에서 고영희를 낳았다. 고영희는 가족들과 함께 북송선을 타고 북한으로 들어갔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11세였다. 재일교포는 '재보'라는 이름으로 최하위 감시 대상이다. 북한에서 기쁨조 단원이었던 고영희는 만수대 예술극장에서 무용을 연습하다 김정일의 눈에 띄었다.

이때부터 고영희는 비밀파티에서 김정일의 열지리를 차지했다. 당시 나이는 23세였다. 그녀는 본처가 있던 김정일의

안방을 차지했다. 김정일은 그녀를 공식 부인으로 인정할 만큼 쪽 빠졌다.

고영희는 김정일과 사이에 김정철, 김정은, 김여정 등 2남 1녀를 낳았다. 둘째 아들이 바로 북한 통치자 김정일이다. 고영희는 2004년 프랑스에서 유선암 치료를 받고 귀국한 후 사망했다.

당시 나이 52세였다. 김정일과 고영희가 동거할 당시 김정일에게는 이미 분처인 김영숙 외에도 성혜림까지 있었다. 그래서 김일성은 김정은을 손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실제로 고영희는 재보 출신 성분에 기쁨조 접대부 출신이다.

고영희는 김정일과 결혼한 적이 없고, 고영희가 낳은 김정은은 사생아였다. 2014년 제주도 봉개동 명도암 일대에서 김정일의 외할아버지와 외증조할아버지 묘가 발견됐다. 언론에 알려지지 하루 만에 고경택의 묘가 해체됐다. 훼손될까 후손이 옮긴 것이다.

현대인의 스트레스 불면증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다. 숙면하지 못하면 다양한 건강 문제가 발생한다. 피부가 노화할 뿐 아니라, 고혈압과 심혈관질환 발생률이 2배, 비만 발생률이 22% 높아진다.

잠이 오지 않는다면 '478 호흡법'을 실천해보자. 478 호흡법은 배를 부풀리며 4초간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7초간 숨을 참고 멈춘 뒤 △8초를 숨을 내뿜는 것이다.

이 호흡법은 폐에 많은 산소를 공급해 부교감신경을 안정시키면서 세로토닌을 촉진시킨다. 세로토닌이 숙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전환되면서 불면증 극복에 도움이 된다.

신체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낮잠을 피하고, 여쩍 수 없이 낮잠을 자는 경우에도 10~15분 정도로 제한해야 한다.

매일 규칙적으로 30~40분 운동하되, 잠자리 들기 6시간 전에 운동을 마치는 것이 가장

좋다.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이내에 30분간 더운물에 목욕해서 체온을 2도가량 올리거나 따뜻한 물이나 보리차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

수면 방해 물질을 차단하는 것도 필수다. 흡연자는 오후 7시 이후에는 담배를 피우지 않아야 한다. 카페인 들어 있는 커피나 홍차, 콜라, 초콜릿도 저녁에는 되도록 먹지 않는다.

더불어 잠들기 3시간 이내에는 많이 먹거나 마시지 않는 게 좋다. 다만, 잠자는 데 꼭 필요한 아미노산, 트립토판, 마그네슘이 들어 있는 바나나는 섭취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시계는 잠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두고, 밤에 일어나더라도 시계를 보지 않는 게 좋다.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고, 공기 소음이 잘 띄고 편안한 실내 온도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귀마개나 눈가리개를 사용해도 좋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자녀 방문의 날' 어린이와 대화하는 바이든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월 2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자녀 방문의 날' 행사 중 어린이들을 인터뷰하고 있다. 백악관 직원과 출입 기자 자녀들이 이날 백악관 자녀 방문의 날 행사에 초대돼 각종 체험을 했다.

러 공격 이후 아파트 화재 진압하는 소방관들



4월 2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 남쪽 200km 떨어진 우만 마을에서 소방관들이 러시아의 공격으로 파괴된 아파트 건물의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